

†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	
금주 미사 독서: 김현진 소화데레사, 유수진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주 미사 독서:	봉헌금 : \$ 346
금주 미사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월프레드	감사헌금: \$200
다음 주 미사 복사: 우명희 카타리나	(심유필 베르나르도)
금주 미사 해설: 윤보연 소화데레사	합계 : \$ 546
다음 주 미사 해설: 김지원 카린	봉헌봉사: 전은숙 글라라
반 주: 조은영 베다, 황지혜 레지나	다음 주 봉헌봉사: 조성익
회 계: 한진 베드로, 황성필 요한	토마스 모어
친교실 정리: 학부 구역	* 매월 마지막 주는 2 차헌금이 있습니다.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 시 30 분 사제관 (10 월 5 일)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다음 기도모임 9 월 첫주 금요일(장소 계시관 참고)
교리 모임	미정
골프 모임	매주 일요일 오전 9 시 (장소: Tumbledown Trail)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예수님께서는 남성 위주의 시대에 여인들을 존중해 주시며 인간의 품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내세워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이혼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두 이야기를 예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혼인의 근본적인 의미를 일깨워 주십니다.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는 남녀의 평등성입니다. 여자는 물건이 아니므로 남자의 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격체입니다. 여자와 남자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평등하게 지어졌고, 하느님과과의 관계에서도 평등합니다. 혼인이란 남녀 당사자들이 모두 하느님께 속한다는 사실에서 평등한 남녀의 결합입니다. 창조의 두 번째 이야기는 남녀의 보완성입니다. 남녀는 서로 협력하여 살아가는 보완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아직도 많은 사람의 사고 속에 남아 있는 남성 우월주의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남녀의 평등이 없는 부부 사이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동반자 의식이 없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부족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주임 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거주사제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회장 김태진 하상바오로 (608) 628-7977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kcc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E-mail kccmwi@gmail.com	
[연중 27 주일]		2012 년 10 월 6 일	
<제 1 독서> 창세기, 2, 18-24		<제 2 독서> 히브리서, 2, 9-11	
화답송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여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네 아들의 아들들을 보리라.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마르코복음, 10, 2-16 그때에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졸으신 분			
[오늘의 성가] 시작: 435		봉헌: 253	성체: 175
		파견: 271	



그리스도인

정양모 신부

1. 신약성서시대

그리스도교 신자, 정확히 그리스도인(Christianos)이란 낱말은 신약성서에 세 차례 나온다(사도 11,26 ; 26,28 ; 1 베도 4,16). 이 명칭의 기원은 다음과 같다. 35 년경 일곱 봉사자들의 대표자인 스테파노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자 헬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시민이 50 여 만이나 되는, 시리아 지방의 안티오키아 대도시로 와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도했다.

40 년대 초반에는 바르나바와 바오로가 안티오키아 교회를 돌보았고, 이 교회를 거점으로 삼아 키프로스·터키·그리스에 이르기까지 전도활동을 폈다. 안티오키아의 이방인 시민들이 예수 신봉자들을 역사상 맨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다. 그 뜻인즉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받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사도 11,19-26). 헤로데 대왕의 손자 아그리파 임금(사도 26,28), 그리고 박해자들이 우리 교우들을 그렇게 불렀다(1 베도 4,16). 예나 이제나 유대인들은 예수 신봉자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 않고 ‘나자렛 사람들’(Nazoraios 의 복수 Nozoraioi)이라고 한다(사도 24,5). 신약성서 시대의 예수 신봉자들은 스스로를 ‘제자들’, ‘믿는 이들’, ‘형제들’, ‘성도들’이라 지칭했다.

2. 사도교부시대

예수 신봉자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첫 번째 전거는 100 년경 시리아에서 씌어진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의 12 장 4 절이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가운데서 게으름을 피우며 사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110 년경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된 다음 순교한 이냐시오스 주교의 서간집에 자칭 ‘그리스도인’이 네 번 나온다. 비티니아 속주의 총독 플리니우스 2 세가 112 년경 트라야누스 로마 황제에게 올린 서간(서간집 10,96)에서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보고를 했다. 그 내용인즉, 로마 시민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배교를 거부하면 사형에 처하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배교를 거부하면 황제께로 압송하여 재판을 받도록 한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날이 밝기 전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찬송가를 부른다는 것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로마 역사가 타치투스가 쓴 「연대기」 15 월 44 장 2 절에서는, 네로 황제가 로마 시가지를 불 지른 다음 여론이 험악하자 그 비행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겨 그들을 모질게 박해했다고 한다.

† 공지사항

1. 새로운 사목 위원 선임
- 회계 담당 황성필 요한 형제님(심윤필 형제님 후임)
2. 가톨릭 출판사 2013 년 달력 주문
- 3 가지 종류 중에서 한가지 선택
3. 18 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국민 신청
- 주 시카고 총 영사관 홈페이지 참조, www.chicagoconsulate.org/
4. 10 월 독서, 간식 및 청소 담당: 학부생 구역



3. 그리스도인의 정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연을 맺고 사는 사람이다. 서기 30 년 5 월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순례를 와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만든 이들은 예수의 영험한 삶과 그분의 비극적 죽음과 그분의 불가사의한 부활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령을 받아 다짐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자고. 그러다보면 현세에서 복락을 누리기는커녕 극한상황에서는 예수처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처럼 부활에 이르는 길임을 확신했던 것이다.

1 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 예수 그리스도 체험을 글로 적어서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었으니, 곧 신약성서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역사적 실상과 예수를 그리스도·주님·하느님의 아들·하느님으로 받들어 섬긴 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알아보려면 우선 신약성서를 익혀 마땅하다. 그러나 후세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성서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하고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네 처지에서 다시 이해하고 다시 체현코자 애썼다. 말하자면 경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화석화하지 않고 자기네 삶의 활력소로 삼았던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모름지기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뜻과 말씀과 행적과 상통하는가 자문하면서 나날의 삶을 꾸려갈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네 인생의 방향·규범·의미로 삼아서 덧없는 듯한 일상을 뜻있게 살기로 작심할 것이다. 어쩌다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 절대 다수는 가톨릭·정교회·프로테스탄트 등 어느 한 교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을 한다.